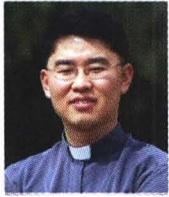


발행인 | 이병호 편집 |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1808호

주소 | 560-912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전화 | (063)285-0041 팩스 | (063)283-9365 http://jccatholic.or.kr E-mail | catholic14@hanmail.net

강론 ...

##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김정현 신부  
(청소년 교육국장)

2002년 3월 25일 일요일 고(故) 정주영 회장의 영결식이 서울 중앙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영결식이 거행되던 중 생전에 그 분이 남긴 말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 중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한 기자가 “몇 세까지 살고 싶으십니까?”라고 묻자, 고(故) 정주영 회장이 웃으면서 “백오십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생(生)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몇 년 전 소 때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던 고(故) 정주영 회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때 저는 지팡이를 짚고 주변 사람의 부축을 받아가며 걸어가는 정주영 회장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하루하루 가는 것이 아까울까? 그 많은 재산과 권력을 뒤로한 채,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빠르고 아쉬울까’ 하는 생각을 한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당시나, 또 돌아가시기 전이나 고(故) 정주영 회장의 심경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백오십세 까지만 살았으면...”이라고 대답하신 것으로 보아 모든 것이 아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시간’을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주고라도 ‘시간’을 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는 소망일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인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

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주기는 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소망들 중 하나는 평화일 것입니다.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평화를 늘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서는 ‘평화를 주고 간다. 그런데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백오십세’ 아니 불로장생을 위해 몸에 좋은 것이라면 장소 불문하고 찾아 나서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자녀들에게 몸에 좋은 보약, 좋은 학원, 고액의 과외는 시키지만, 학원 때문에 첫영성체를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시키지 못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자녀들에게 현세적인 작으나마한 행복은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그것도 장담할 수 없지만)영원한 생명은 결코 자녀들에게 물려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만 주시는 평화를 얻어 누리기 위해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평화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주간 되시길 빕니다.



한병기(프란치스코)

mabge

# 어둔밤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분당 주임



“내가 태어난 날이여, 차라리 사라져 버려라. 사내아이를 배었다고 하던 그 밤도 사라져 버려라. 내가 어찌하여 모태에서 죽지 아니하였으며 나오면서 숨지지 아니하였는가?” (욘 3,3-11)

생명은 자체로만 보면 기쁨이요 환희이다. 고통이나 죽음의 그림자는 아예 없다. 원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이어서 불완전함을 모른다. 태어난 생명은 영원을 노래하며 언제나 그분과 같을



줄 안다. 그러나 땅 위의 생명은 놀랍게도 그렇게만 체험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고 저주의 그림자가 있다. 기쁨 곁에는 슬픔이 있고 환희 곁에는 절망이 있다. 생명은 생명이로되 죽음과 함께 온 생명이다.

인간의 생명이 그런 것이었다. 생명이 있되 환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함께 찾아온다. 기쁨은 없고 절망만이 전부인양 덮쳐오는 경우도 있다. 죄 때문만이 아니다. 죄가 없어도 찾아온다. 헤아릴길 없는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가. 살아야 할 이유를 잃고 오히려 죽음을 그리워하며 살 때가 있다. 시름과 고통이 커서만이 아니다. 그것을 겪어야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생일을 저주하는 욘의 절규는 바로 절망에 빠진 우리들의 것이다. “태어난 날이여, 차라

리 사라져 버려라.

사내아이를 배었다고 하던 그 밤도 사라져 버려라.” 하느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아우성이 아니다. 하느님을 알되 그분께로 조차 멀어지고 싶은 괴로운 자의 하소연이다. 생명

과 빛은 보이지 아니하고 죽음과 어두움만이 드리워진 인생의 캄캄한 밤이다.

빛은 어두움으로 기쁨은 절망으로 뒤바뀐 나날이다.

태도나 인내심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도가니가 있다. 빛이라곤 전혀 없는 완전한 어둔 밤이 있다. 감사와 찬미는 커녕 탄식과 괴로움으로 지새우는 밤이 있다. 응답은 고사하고 침묵만이 두렵게하는 밤이다. 하느님은 계시어도 말이 없으시니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인생이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태 27,46)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고통어린 음성이 들려오는 듯 하다.

밝은 태양의 날만을 바라는 우리이나 먹구름 낀 고뇌의 날도 필요하리라. 차라리 모르겠거든 십자가 앞의 번뇌를 닦았다고 생각함이 어떠하랴.

그림 : 박종구 (바드리스오)

# 즐거운 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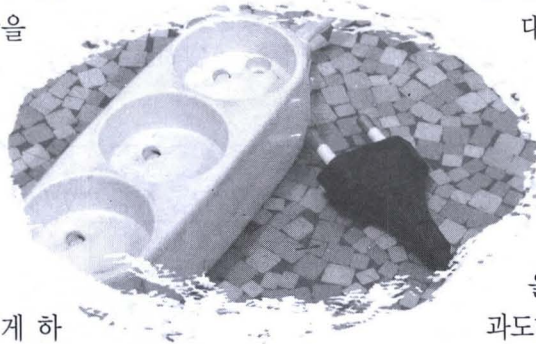


이덕재(안젤라)  
전주교구 환경사목 회장

지난 달 환경사목에서는 서울대교구의 환경 사목 강사를 초빙해서 '즐거운 불편'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듣고 환경미사를 드렸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쉽고 편한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 이면에는 환경오염이라는 문제가 따라다닌다. 환경을 지키는 일에는 귀찮고 느리고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이다. 강의 내용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불편함을 즐겁게 받아들여서 하느님이 마련하신 이 세상의 환경보전을 위해 생활하자는 내용이었다.

창조질서보전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은 지구온난화 문제, 먹을거리 문제, 일회용품 문제, 물 문제, 에너지 문제 등이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사항으로 걸어 다니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먹을 만큼만 생명의 농산물로 밥상 차리기, 외식 줄이기,



남기지 않고 적게 먹기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으로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개인 컵 가지고 다니기, 이면지 사용하기 등. 물을 아낄 수 있는 실천으로 일

반 세 제 대신 EM 쌀뜨물 발효액과 친환경세제와 친환경수세미 사용하기, 물 받아서 세수하기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으로 안 쓰는 가전제품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빼놓기, 과도한 냉난방 피하기 등. 여러 방법을 제시하였다.

조금만 불편하면 세상이 깨끗해지는 이 방법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 선조들이 그대로 했던 일들이었다. 환경사목은 '즐거운 불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순교임을 강조하고 있다.

조금만 불편하면 세상이 깨끗해지는 이 방법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 선조들이 그대로 했던 일들이었다. 환경사목은 '즐거운 불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순교임을 강조하고 있다.

**입당송** 이사 48,20

환호 소리 울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 끝까지 퍼뜨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15,1-2,22-29

**회답송** 시편 67(66),2-3,5,6과 8(◎ 4)

◎ 주 하느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모두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제2독서** 묵시 21,10-14,22-23(또는 22,12-14,16-17,20)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4,23-29(또는 17,20-26)

**영성체송** 요한 14,15-16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 이병호 주교님 개신교 신학교 교수 대상 특강

지난 5월 7일(월) 오후 2시 전동 성당 강의실에서 대전 개신교신학교 교수들과 전주교구 여성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이병호 주교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이날 이병호 주교는 데이 야르드 샤르맹신부의 「세상 위에서 드리는 미사」라는 주제로 강의하시기 전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의 화로가 되자” 사랑이라는 불을 우리 안에 당겨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의 노동과 고통, 아픔,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수고의 열매들을 우주를 제단 삼아 하느님께 드려야하는 제사 즉, ‘미사 목상’은 모든 신앙인들과 나눌 가치



가 있음을 강조하셨다. 아울러 이병호 주교는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을 꿈꾸며 살 것인가? 우리가 꿈꾸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와 신앙과 일상 생활을 어떻게 통합 할 것인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일상 삶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셨다. 이날 모인 목사들과 여성연합회 회원은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삶을 다시 재 촉진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홍보국 취재

### ● 송학동 성당 셋별 Pr. 교구청 신축기금 봉헌

송학동 성당(주임=박인근 신부) 예언자 모후 직속 셋별 뽀레시디움이 1,000차 회합을 맞아 특별성금 50만원을 모금하여 교구청 건립기금으로 봉헌하였다. 1988년 2월 창인동 성당에서 분리되어 19년 2개월 동안 회합을 하면서 72명의 단원들을 입단시켰으며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1차부터 1,000차까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모범단원도 있으며, 매년 불우이웃 돕기와 봉사, 단원 자신들의 성화를 위해 애쓰는 모범 뽀레시디움이다. 지난 4월 26일 1,000차 회합을 하면서 단원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자는 생각으로 50만원의 성금이 모였으나 교구청 건립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교구청 건립 특별성금으로 봉헌하였다. |조은아 기자

### ● 쌍교동 성당 춘향제 나눔잔치



남원 쌍교동 성당(주임=박성팔 신부)은 남원의 전통축제인 춘향제를 맞아 지난 5월 4일(금)부터 6일(주일)까지 성전보수 기금마련 춘향제 나눔잔치를 가졌다. 나눔잔치를 통하여 성전보수기금 마련과 본당 신자들의 일치를 이루는 성과를 가졌고, 지역사회 주민과의 친교와 사랑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강인식 기자

### 부동산 경매 실전 재테크

- 수강 회원 모집 -

기간 : 2개월 과정  
모집반 : 주, 아카데미(소수정원제)/주 2회  
학습관 : 중화산동 터를 뒷편  
문의 : 229-1113 / 019-526-1490  
플러스 욕선  
박상운(안토니오)

### 늘편한 유항외과

유방·갑상선·하지정맥류  
치질·대상 수면 내시경 전문  
원장 전문의 : 김상수(안토니오) / 이종재  
Tel : 277-7582~3  
덕진구 송천동 G.S마트 옆

전북대병원 처방 조제전문

### 대 학 약 국

(전북대병원 신전문 약)  
☎(063)275-5700  
FAX. (063)275-5760

###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필리핀 등) 6개국  
이종관(도민고)  
☎ 016-9612-9380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 조상님을 영구보존으로 모시는 효 실천

진공 주석유골함/망인 초상 금속사진  
(주)도남  
이진호(실베스텔)  
문의 : 063-282-0138, 018-231-8181

### 스스로한의원

원장 : 송승현(도마), 최윤미(미가페)  
적외선체열진단  
운동치료·체형교정클리닉  
☎(063)254-1075  
전주 E마트 아외주차장 옆

### 일본 성지순례 5일 459,000원

(부산항복 교통비 3만원 별도)  
여행지 : 후쿠오카-하우스텐보스-나가사키-오키나와-구마모토정  
일정 : 6월17일~21일, 마감 6월7일(헤리호로 왕복)  
문의 : 232-9200, FAX 232-5200  
대표 : 박요안(요한) 016-622-8654  
국민여행사

### 유네스코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한

여행지 : 운대산과 대 황하 4박 5일 579,000원  
(인천공항 리무진버스비외, 모든경비 포함)  
일정 : 6월14일~18일, 마감 6월 5일  
(왕복 전세기이용)  
문의 : 232-9200, FAX 232-5200  
대표 : 박요안(요한) 016-622-8654  
국민여행사



● **신태인 성당 초·중·고등부 봄소풍**

신태인 성당(주임=김봉술 신부)은 지난 5월 5일(토) 초, 중, 고등부 봄소풍을 다녀 왔다. 고창 청보리 밭에서의 미사는 또다른 새로움이였다.

넓고 푸른 청보리의 싱그러움 향기를 맡으며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시원한 나무그늘 밑에서 자모회 어머니들이 준비한 점심을 먹고 퀴즈 맞추기로 푸짐한 선물도 받았다. 그림 그리기 시간에 신부님과 수녀님, 성당 가족들을 주제로 정성껏 그린 어린이에게 미사중에 시상도 했다. 어린이 날이기도 한 이날 어린이들은 친구들과의 우정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이선숙 기자



어졌다. 공동체에서 준비한 필리핀 음식과 후원받은 음식 등으로 푸짐한 뒷풀이를 하며 모두가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김영수, 이미원 기자

● **금암동 성당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기**

금암동 성당(주임=김요안 신부)은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5월 6일(주일) 9시 미사와 교중미사 전에 본당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를 펼쳤다.

가족의 중요성과 부모공경의 마음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여성분과에서 펼친 이날 행사를 위해 지난 5일(토) 오전부터 여성분과 회원들이 성당에 모여 직접 구입한 재료로 200여개의 카네이션을 정성껏 만들었다. 이수도 기자

● **지곡동 성당 바오로 성서대학 봄소풍**

지난 5월 3일(목) 지곡동 성당 (주임=김병운 신부) 바오로 성서대학생 20여명이 봄소풍을 다녀왔다. 오전 9시에 출발하여 광천의 '그림이 있는 정원'에 도착하여 갤러리와 고가구 전시장을 돌아보고 잔디밭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수건돌리기, 보물찾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서 갈매꽃 성지로 가서 십자가의 기도를 바치고 성당을 둘러본 뒤 돌아오는 짝이지만 알찬 일정을 마쳤다. 이미원 기자

● **어버이날 효도 잔치**

지곡동 성당(주임=김병운 신부)은 지난 6일(주일) 교중미사 후에 어르신 효도 잔치가 있었다.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교육관에서 국수와 수육, 떡을 대접해 드렸다. 세실리아기타반의 연주가 있었으며 85세 이상 되신 어르신 여덟 분에게 주임신부가 홍삼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사 후에 성가대와 모든 신자들이 '어머님 은혜'를 3절까지 부르자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도 있어서 한층 가슴 뭉클한 분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미원, 김영수 기자

●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 2주년 미사 및 기념식**

소룡동 성당(주임=이명재 신부)에서 지난 5월 6일(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 2주년 미사와 기념식이 있었다. 이명재 신부와 전보근 신부가 공동으로 집전한 미사에서 두 사제는 그동안 이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활동해온 리따수녀와 스텔라 수녀, 지곡동 성당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주민들이 전례와 반주를 담당한 미사가 끝나고 나서 케이크 절단과 기념촬영이 있었고 나눔잔치가 이

**17년 역사 수맥들침대**

- 공장 직판 -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대표 : 이경복 바오로  
전주 1588-5335

치질·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  
**전주 항원외과**  
평화동 사거리-중간-한국통신 사거리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이관재  
☎ 228-6002~3

**제 주 관 광 안 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는  
관광 및 성지를 안내  
차량·호텔·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H·P 011-4566-6476

**해맑은 펜션**

www.내린천해맑은펜션.kr  
=강원도인제 관광안내=  
MT 워크샵 / 연수 / 각종단체모임 / 레프팅  
▶ 산과 아름다운 계곡 자연의 고향  
강원도인제 해맑은펜션에서는  
편안하고 친절하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용순(세레나) 033-463-4486~7  
010-8385-4485

**자연이 준 생명 한의원**

비염, 아토피, 비만, 체질개선  
진재호(빅토리아) 오서진(마르가리타)  
문의 : 063-253-2599

**<약산> 한빛정형외과**

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원장 : 김선규(리파엘), 이정미(글라리아)  
- 밤 9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영등동 제일1차 APT옆)

(뽕주문 환영, 케이크 할인판매)

**천사의 양식**

효자동 하이마트·광진목화아트 맞은편  
김병각(대건 인드리아) 김현(베로니카)  
문의 : 255-1004, 016-627-9966

**호 성 냉 동**

· 에어콘 · 저온 창고 · 업소용 냉장고  
· 에어커터 · 에어켓텐 · 버섯재배 설치  
양태수(요왕) · 김경남(마리아)  
☎(063)242-4959 H·P 011-659-8085



## 말씀으로 성 신바람난 '바로로 성서

### 성경공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성경 공부요? 한마디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성경공부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지만, 마음만 있지 몸은 안 따라주는 것이 신자들의 현재의 모습이니까요.” 황등 성당 사제관에서 만난 양경배 주임신부는 성경 공부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많은 본당에서 오래 전부터 신자들을 대상으로 성서 교실을 운영해 왔지만 소규모이고 지속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신자들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지던 성경공부를 이들의 삶 속으로 바짝 끌어 당겨 놓은 양 신부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사제의 모습은 힘 있고 당당하게 느껴졌다. 신부님은 금년 1월에 황등 성당에 취임하여 정제되었던 본당 공동체에 말씀의 새바람을 일으켜 놓았다. 농촌 본당의 열악한 환경을 딛고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는 신바람 나는 성서 대학을 이뤄놓은 신부님은 “충분히 된다!”며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에 도전할 것을 당부한다.

### 삶에 활력과 기쁨을 주는 말씀

금년 황등 성당 사목의 역점 사업은 ‘말씀으로 성화되는 공동체’이다.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을 즐겨 듣고 따르며 깨달음을 실천에 옮겨 복음전파를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양 신부님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신자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의 장을 마련하였다. 성경 신구약 2년 과정의 ‘바로로 성서대학’을 본당 안에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하여도 신자들이 외면하면 안 되기에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였다. 성경을 알고 싶지만 성경 공부라는 말이 부담을 엄청 준다. 그래서 신부님은 공부라는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단다. 대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방법, 신앙생활에 활력과 기쁨을 주는 기회”라고 미사 때마다 홍보하였다. 연세가 지긋한 분들과 한글을 모르는 신자들에게는 들을 수만 있어도 된다고 설득하였다. 그리고 “성서대학은 하느님 나라에 가는 대학”이라며 세상의 어떤 대학과도 비길 수 없는 천상의 대학임을 내세웠다. 그래서 홍보한지 불과 2주 만에 176명의 신자가 성서대학에 등록하는 좋은 결실을 얻었다. 주일미사에 나오는 신자가 340명 정도라고 하니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 “나도 대학생이다”라는 긍지와 자부심

요즘 교회 안에는 말씀에 눈뜨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새록새록 느끼는 행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금년 3월부터 시작된 바로로 성서대학은 신자들이 그동안 목말랐던 영적인 삶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었으며 하느님 자녀로 살아가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 답해주었다. 황순금(수산나·65)자매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미사 참례가 의무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기쁜 발걸음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시어머니, 남편과 함께 성서 대학에 다닌다는 전 데레사 자매는

# 는 공동체

## 운영... 영적 갈증에 단비



요즈음 어머니가 눈에 띄게 달라지셨단다. 저녁마다 손자와 그림 성경 색칠을 하면서 행복해한다며 “어머니가 학교에 다니지는 못했지만 2년 후 성서 대학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쓰게 된다면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라고 말한다. 신부님은 성서대학 수강생들을 대학생이라고 깍듯이 부르고 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남학생, 여학생으로 통한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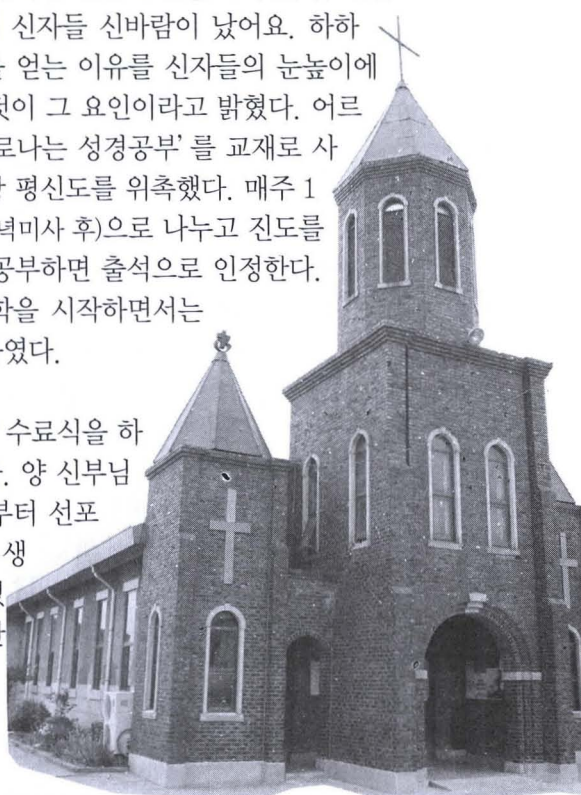
갖게 되었고 특히 어르신들이 이 호칭을 좋아한다. 신부님은 무엇보다 출석을 잘하도록 강조한다. 그래서 집에 있는 달력에 수업이 있는 날은 빨간 동그라미를 그어놓으라고 당부하였다. 농번기에는 방학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잊어버리기에, 성당 회합실과 사제관 달력에도 수업 있는 날은 빨간 동그라미가 되어있다. 그래서 인지 성서대학의 평균 출석률이 91%라고 한다. 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인장처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제의 열절함이 느껴진다.

### 새로 나는 하느님의 자녀들

바로 성서 대학은 성경 공부는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통상적인 관념의 틀을 부수었다. 신명나는 성경 공부의 새 장을 연 양경배 신부님은 “요즈음 우리 신자들 신바람이 났어요. 하하하...”라고 경쾌하게 웃는다. 이렇게 성서대학이 좋은 반응을 얻는 이유를 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한 것이 그 요인이라고 밝혔다.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일반신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새로나는 성경공부’를 교재로 사용했고 강사는 성경공부를 이수한 역량 있고 헌신적인 타 본당 평신도를 위촉했다. 매주 1회 강의를 듣도록 하되 낮반(금요일 오전 10시), 밤반( 목요일 저녁미사 후)으로 나누고 진도를 똑같이 해 밤반에 등록했어도 사정이 있을 때에는 낮반에서 공부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각 반은 학생장과 부학생장, 총무, 반장조직을 두고 성서대학을 시작하면서는 전 신자들에게 성경 통독카드를 나눠줘 성경 읽기 붐을 조성하였다.

성서 대학은 학생들이 1년 과정을 마치는 내년 4월에 신약 수료식을 하고 2년 과정을 마치면서는 주교님을 모시고 졸업식을 갖는다. 양 신부님은 학사모와 가운을 입고 성대히 졸업식을 할 것이라고 지금부터 선포하였다. 바쁜 농사일에 쫓기면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말씀의 생수를 길어 올린 이들에게 그날은 설레임의 시간이 아닐 수 없다. 그 날 졸업생들이 쓰게 될 학사모는 주님이 당신의 충실한 자녀들에게 주는 생명의 화관처럼 빛날 것이다.

(취재 : 신현숙 · 오안라 기자, 사진 : 김영수 기자)



아버지, 어머니께

햇살이 따사로우 마음을 놓고 있으면 어느새 예리한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하신 아버지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봄은 어느 봄보다도 유난히 더 쌀쌀한데, 비단 날씨 탓만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사 이치라지만, 석별의 정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저로서도 불시에 닥치는 슬픔에 당황스러운데,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어머니’라는 존재가 아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는 어머니를 잃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울컥하고 눈물이 날 정도인데, 비록 나이가 들고 어머니가 연로하셨다 해도, 아들에게 있어 ‘어머니’의 존재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일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족의 정이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포용으로 감싸 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큰 슬픔 앞에 담담하고 초연하게 대처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버지의 표정에 언뜻언뜻 묻어나는 그 슬픔의 깊이에 아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지만, 큰 슬픔 앞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담대함은 제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덕목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이런 아들이 있기에 그토록 편히 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고난은 그 바닥에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다 했습니다. 저는 그 씨앗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더 화합하고 한 데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정이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포용으로 감싸 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군대에서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 가족의 사랑을 더욱더 절실히 느낍니다.

부활절을 맞아 이곳 군중병들도 바쁜 나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때에 맞춰 돌아가신 것이 혹 자식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잔잔한 감동을 받습니다. 부활의 희망으로 할머니의 크나큰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 더욱 크게 퍼져나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무쪼록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2007년 4월 7일 아들 올림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직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긴 하지만, 봄꽃들이 다투어 피고 나뭇가지에 새잎이 연둣빛으로 돌아나는 완전한 봄날이다. 네가 근무하는 그곳에도 그러겠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답장이 많이 늦어졌구나. 그러나 마음속으론 네 편지에 대한 답장을 얼마나 보냈는지 모른다. 어머니를 영원히 떠나보내고 슬픔에 젖어있는 나에게 너의 편지는 너무나 큰 위안과 위로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 네 말대로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분이셨지. 남들에게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나 피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으셨던 깔끔한 성격대로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도 누가 되지 않도록 큰 배려를 하셨다고 생각된다. 효자는 현모가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할머니께서는 아들과 며느리 사랑을 하시곤 하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할머니의 그 사랑이 우리

**맞는 일과 맞지 않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운 힘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할머니께서는 꾸지람이나 채찍보다는 사랑과 격려라는 방법으로 우리 자식들을 키움으로써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하게 하셨던 것 같다.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고 가셨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엄지손가락을 드시고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최고야, 잘 생겼어’ 하는 말씀을 나에게 남겨주셨다. 생의 마지막까지 아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신 것이지. 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기쁨이 한편에 솟아오름을 억누를 수 없었다. 어머니의 큰 사랑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었지. 그 선물에는 나에게 주는 무언의 교훈도 들어 있었다. 너도 네 자식들을 그런 큰 사랑으로 키워라 하는 교훈 말이야. 밤샘을 자주 한다니 고생이 심하겠구나. 늘 하는 이야기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피하지 말고 성심성을 다하기 바란다. 맞는 일과 맞지 않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몸은 비록 헤어져 있지만,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 가족 서로 튼튼한 끈으로 이어져 있음을 잊지 말자. 주님의 은총 속에 건강히 잘 지내기 바란다.

2007년 5월 아빠가



## “아빠, 아무 말 안해도, 아빠 맘 다 알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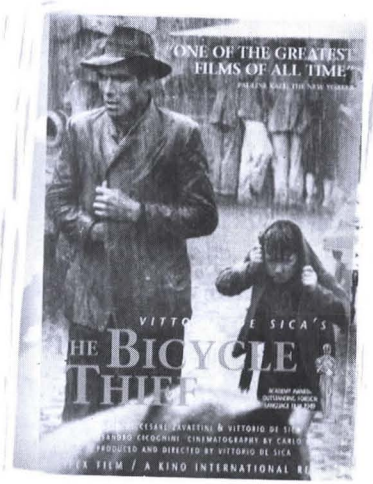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에게 아무 말 없이 살며시 ‘손을 잡아주는 것’, 수천마디의 말보다도 깊은 애정과 신뢰를 들어낼 때가 있다. 또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까지도 준다.

이태리 네오리얼리즘의 불후의 명작으로 남은 <자전거 도둑>이란 영화 속에 바로 그런 힘을 주는 장면이 있다. 영화는 다른 사람에게 는 별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일 수 있는 그것, 그것을 도둑맞은 사람의 비참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된 로마에서 직업 없이 떠돌던 안토니오라는 사람은 어느 날 간신히 일자리를 하나 구하게 된다. 길거리에 포스터를 붙이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선 자전거가 필요했다. 부랴부랴 그의 아내 마리아는 헌 옷가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자전거를 구한다. 그러나 ‘이제 일자리를 구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는 희망으로 포스터를 붙이는 와중에 누가 껌싸게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나 버린다. 안토니오는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가 보았지만 허사였다. 그래서 그는 어린 아들 부르노와 함께 자전거를 찾아 나선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하찮은 일이라는 듯 반응이 없다. 자전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선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하였고, 2년을 실직자로서 기다려온 안토니오에겐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단순한 물건 이상의 희망, 그 자체를 상징했다. 결국 어린 아들과 함께 하루종일 길거리를 배회하며 애를 태우던 안토니오는 우연히 한 젊은이가 자기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을 발견한다. 우여곡절 끝에 집까지 찾아냈지만, 그 젊은이의 집에 들어선 순간 다시 절망에 빠진다. 자기처럼 가난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젊은이는 간질을 일으키며 길가에 쓰러지고 경찰이 오지만 증거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의 편을 들지 않는다. 결국 자전거는 영영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하루종일 허기를 참으며 자전거를 찾았지만 되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의 아내와 아들을 위한 따뜻한 집과 빵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망설이다가 자전거를 훔치기로 결심한다. 그는 먼저 아들을 집으로 되돌려 보내고 어느 신사의 자전거를 훔치려는 순간,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 붙잡히고, 집으로 돌아가던 아들에게도 들켜버린다. 참으로 난처한 순간이다. 자전거 주인은 이해와 용서의 시선으로 아버지와 우는 아들을 번갈아 보고는 결국 그를 경찰서에 데려가야 한다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놓아준다. 이 장면에서 안토니오의 분노와 치욕이 아들에 의해서 더 강화된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복잡한 도심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두 사람은 수치로 인한 충격에 조용히 흐느끼고, 안토니오는 억지로 울음을 참으며 묵묵히 걸어간다. 아들 부르노는 그런 아버지를 올려다보고는 천천히 부드럽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들의 손을 움켜쥐든다. 영화는 이 때 아들 부르노가 아버지의 손을 말없이 그리고 살며시 끌어잡는 장면을 카메라로 클로즈업시킨다. 바로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이해, 용서, 그리고 비록 아버지가 자전거도둑으로 몰렸을지라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신과 동반자임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맘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는 끔찍한 창피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애정과 신뢰는 회복될 거라는 것을, 비록 자전거도 없고, 일자리도 없지만 애정과 신뢰가 있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뒷모습을 통해 잔잔하게 말해준다. 이 영화는 이태리 네오리얼리즘을 표방한 대표적인 영화로,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을 실제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와 가난하고 평범한 아이를 배우로 썼다고 한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볼 수 있는 좋은 영화이자, 복음적인 내용까지도 나눌 수 있는 좋은 영화이다.

(홍보국장 서석희 신부)





교구장 일정

- **글라라 수녀원 피정미사**  
5월 14일(월) 오후 3시 천호
- **사목방문**  
5월 15일(화) 조촌동  
5월 16일(수) 모현동  
5월 17일(목) 산동  
5월 18일(금) 시기동
- **천호성지성당 축성식**  
5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
- **견진**  
5월 20일(주일) 오전 10시 30분 효자동

미사 · 행사 · 모임

- **가정성화 미사**  
5월 14일(월) 오전 11시 치명자산 성당
- **M.B.W. 콘비벤자**  
5월 14일(월) 오후 7시 센터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군산 월례미사**  
5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시청 로사리오회**  
5월 15일(화) 오후 6시 40분
- **수목원(도로공사) 탐방과 환경미사**  
5월 16일(수) 오후 1시 구센타 출발  
문의 : 018-625-8591
- **교구 법원 관계자 모임**  
5월 19일(토) 오전 11시
- **교구 기자단 모임**  
5월 19일(토) 오후 5시 센터
- **고3, 대학생, 일반 예신모임**  
5월 20일(주일) 오전 10시 성소국
- **익산 하나회 미사**  
5월 20일(주일) 오후 2시 부송동

- **좋은영화 상영**  
5월 15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제목 : 자전거 도둑  
상영시간 : 93분 / 관람비 천원
- **교육국 자모회 월례미사**  
5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교육 · 피정 · 연수

- **교구청 직원 · 사무장(원) 1차피정**  
5월 14일(월)~16일(수) 나바위
- **레지오 단원교육**  
5월 14일(주일) 조촌동
- **가정성화를 위한 계절 강좌(2차)**  
주제 : '나'를 찾아서  
대상 : 자기이해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강사 : 김정민 신부(가정사목)  
일시 : 5월 15일, 22일, 29일 매주(화)  
오전 10시~12시 30분  
장소 : 센타 / 교육비 : 30,000원  
접수 및 문의 : 가정사목부 285-0041  
Fax 285-0049
- **새사제 연수**  
5월 17일(목) 오전 10시 센터
- **초등부 교리교사 아카데미 2차**  
5월 20일(주일) 해월리
- **부모 · 자녀 참만남(MBTI를 활용한)**  
6월 3일 오후 1시 30분(성격유형검사가 있음)  
10일, 17일(주일) 오후 2시  
대상 : 청소년(중·고생) 자녀와 그부모  
(부모자녀가 함께 참석)  
내용 : 3일-성격 특성과 자기와 타인 이해  
10일-부모 ·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17일-부모 · 자녀 참만남을 위한 모색  
강사 : 김정민 신부와 청소년 전문상담가 2인  
참가비 : 2인 5만원 / 장소 : 센터  
마감 : 5월 31일 / FAX : 285-0049  
접수 및 문의 : 285-0041 가정사목부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피정**  
6월 8일(금) 오후 5시~10일(주일)  
장소 : 해월리 피정의 집  
강사 : 권민자 수녀, 나공열 신부  
참가비 : 7만원  
교통편 : 6월 8일(금) 오후 4시  
송천동 성당 출발  
신청 : 5월 31일까지 송천동 성당  
문의 : 016-9549-5151 김남신

기타

- **놀토에 떠나는 우리가족 체험학습 공예교실**  
일시 : 5월, 6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상 : 초등학생(1~3) 자녀를 둔 10가족  
장소 :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  
참가비 : 무료(간식 준비)  
문의 : 신착순 방문 및 접수  
232-0334
- **전주 카리타스봉사단 교육(6월, 11월)**  
6월 2일(토)~3일(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전주가톨릭신학원(윤호관)  
회비 : 5,000원 / 마감 : 5월 29일(화)  
접수처 :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284-5290, FAX 284-4855  
e-mail : sarangdari.hanmail.net  
\*수료증은 11월 2차까지 교육을 이수하셔야  
발급받습니다.

서울 성가소비녀회  
성소모임

일시 : 셋째주일 오후 3시  
장소 : 효자동 성당 수녀원  
문의 : 063-223-3822

30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주최:미신부님(Rev. Brendan MacHale)  
초 · 중생 : 7월21일~8월19일  
(3주, 4주) 427만원~  
대학생 : 6월24일~8월12일(7주) 625만원  
문의 : (주)그린피스 E&T 02-569-1331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7년 5월 5일 현재)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삼례, 장계, 옥봉, 만경, 둔율동, 진안, 소양, 영등소리, 대야, 금암동, 장수, 나바위, 고창, 오수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쌍교동, 신평, 중앙, 나운2동, 수류, 오룡동, 원평, 숲정이, 나운동, 여산, 고산, 신태인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팔복, 용안, 순창, 서학동, 월명동, 우림, 신동, 무주, 서신동, 월명동, 영등동, 조촌동, 인후동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임실, 소룡동, 봉동, 덕진, 금마, 우전, 팔마, 솔내, 함열, 노송동, 주현동, 효자동, 요촌, 부안, 송천동
-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삼천동, 연지동, 미룡동, 용진, 화산동, 송학동

# 김·정·고·부 지구 본당 소식

**고 창** 주임신부: 563-2552 사무실: 564-2044 주임신부: 김 임 철  
유지원: 564-3529 수녀원: 564-6585 서목회장: 이 면 우  
F A X: 563-1782

-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 매일미사 후 묵주기도 바칩니다.
1. 파티마 성모님 순례기도: 17일(목) 후3시 환영기도~19일(토)  
※ 순례기도 일정 시간표참조
  2. 성가연습: 매주(수) 후7시50분전신자 (미사곡 복음성가) - 전신자
  3. 감사헌금: 이용례 10만원, 김애순 3만원 ※ 감사합니다.
  4. 금주모임: 성모회, 제대회 - 미사 후, 임마누엘회 - 16일(수)후7시
  5. 다음주모임: 애령회 - 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266,000원 ■ 교무금: 1,650,000원

**만 경** 주임신부: 548-9995 사무실: 548-9911 주임신부: 백 수 연  
F A X: 548-9911 서목회장: 최 병 순

- ◎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우나, 형제들이 함께 사는것이!(시편133,1)
- ◎ 5월동안 성모님의 마음을 잘 닦는 시간을 보냅니다.
1. 금주: 사무장 피정-14일(월) 후5시~16일(수) 후 5시
  2. 차주: 제대회-교중미사 후
  3. 특별헌금: 김순호-50만, 김지순-3만 ※ 감사합니다.
  4. 금주: 해설-양희정, 독서-최세규, 기공순
  5. 차주: 해설-조미정, 독서-양혜진, 이정숙  
■ 지난주 봉헌금: 385,000원 ■ 교무금: 310,000원

**부 안** 주임신부: 584-1331 사무실: 584-1333 주임신부: 김 원 중  
유지원: 584-1004 수녀원: 584-1332 서목회장: 조 건 규  
F A X: 581-1334

- ◎ 오늘은 구사소용동 성당 동기 2차헌금이 있습니다.
- ◎ 새 교구청사 신축헌금에 정성을 다합니다.
1. 모임안내 ① 성모회-교중미사 후  
② 자모회-19일(토)오후3시30분
  2. 성모회 단합대회: 5일(화) -> 오전8시출발
  3. 15일(화)는 새벽6시에 미사합니다.
  4. 사무장피정: 14일(월)~16일(수)까지 나머지 피정의집
  5. 예비자를 인도합니다. 교리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9시
  6. 신축헌금: 신앙누계-222,148,000원, 임금누계-199,391,270원
  7. 공소미사: 금주-등용(전6시), 창복(후7시30분)  
차주-독지(전6시), 마포(후7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1,648,390원 ■ 교무금: 1,485,000원

**수 류** 주임신부: 544-5653 사무실: 544-5652 주임신부: 원 중 훈  
F A X: 544-5654 서목회장: 손 영 말

-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미사 전 묵주기도 바칩니다.  
※ 기도지향과 함께 성모상 앞 초 봉헌 받습니다.
1. 2006년도 교무금 미납금 납부 바랍니다.
  2. 주님승천대축일: 원평성당에서 미사 봉헌합니다.
  3. 성모의 밤: 5/19(토) 저녁 8시, 성당마당
  4. 야영장, 수영장, 성당 환경정리 작업에 함께 해주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380,010원 ■ 교무금: 340,000원  
■ 미사참례자 수: 165명

**시기동** 주임신부: 538-0092 사무실: 538-0091 주임신부: 경 규 봉  
유지원: 532-5777 수녀원: 538-0093 서목회장: 이 세 용  
F A X: 538-0094 홈페이지: http://www.sigdong.or.kr

- ◎ 가톨릭센터신축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1. 첫 영성체 교리 시작: 5/12(토) 오후 3시(3회 회합실)
  2. 중고생 성경 교리: 5월 19일부터(매주 토요일 후 5시 30분)
  3. 전반기 레지오단원 교육: 5/14(월) 오후 7시30분
  4. 성모의 밤 행사: 5/25(금) 오후 8시 대성당  
■ 지난주 봉헌금: 1713700원 ■ 교무금: 1744000원  
■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692,000원

**줄 포** 주임신부: 581-0242 사무실: 581-0241 주임신부: 송 영 진  
F A X: 581-0241 서목회장: 박 영 우

1. 고구마심기 작업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모임: 성모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성우회, 제대회 - 20일 미사 후
3. 만석공소미사: 오늘 오후 3시.
4. 다음주 용반공소미사는 없습니다.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시기동성당

**신 품** 주임신부: 544-2272 사무실: 544-2271 주임신부: 이 동  
F A X: 544-2281 수녀원: 544-2273 서목회장: 임 석 택

1. 금주모임: 올프레이(환영식-저녁 7:30)  
※ 임보순(체질리아) 꾸르실로 교육 수료를 축하합니다.
2. 차주모임: 연령회, 자모회
3. 공소미사: 백자 차주: 신앙
4. 신품 산악회: 24일(목) 장흥 천관산, 회비-일만원 점심 도시락 지참  
선착순 45명 회비내는 순으로 아침 6시 미사 봉헌하고 신부님과 같이 합니다.
5. 김선희(소화대레사)수녀님 연수: 15일 - 17일
6. 감사헌금: 강대성, 한경화 각 오만원  
■ 지난주 봉헌금: 1,067,900원 ■ 교무금: 1,132,000원

**신태인** 주임신부: 571-8202 사무실: 571-8201 주임신부: 김 봉 술  
F A X: 571-8208 수녀원: 571-8203 서목회장: 박 전 수

- ◎ 능다리 영성센터 신축에 많은 기도 및 관심바랍니다.
- ◎ 5월의 성경쓰기는 사도행전 24장까지입니다.
1. 성모의 밤: 31일(목),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정성껏 준비합니다.
  2. 공소미사: 태인-16일(수) 후7시 30분
  3. 주님승천 야외미사: 20일(주일) 전10시30분, 장소-태인공소  
※ 주일 새벽 6시 미사는 없습니다.
  4. 사무장 피정: 14일(월)~16일(수), 나바위성지
  5. 금주전례: 해설-경귀자, 독서-오영화, 김춘희, 봉헌-서중수부부  
■ 지난주 봉헌금: 954,000원 ■ 교무금: 1,250,000원

**연지동** 주임신부: 538-0532 사무실: 538-0531 주임신부: 박 중 신  
F A X: 538-0534 수녀원: 538-0533 서목회장: 진 용 철  
본영 홈페이지 주소: http://www.yjdsd.or.kr

- ◎ 감사 - 경도관광에 후원해 주신 분들, 수고해 주신 분들
1. 예비신자 입교식: 5월 13일(주일)
  2. 한교공소 미사: 5월 13일(주일) 후3시
  3. 소성양지원 미사: 5월 18일(금) 후7시(본당출발 후6시 30분)
  4. 성모의 밤 행사: 5월 28일(월) 후8시
  5. 산악회 산행: 5월 14일(월) 계양산 체육관 앞 정각8시 출발
  6. 감사헌금: 이동운 100만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377,770원 ■ 교무금: 946,000원  
■ 센터 신축헌금: 180,000원

**요 촌** 주임신부: 544-0152 사무실: 544-0151 주임신부: 박 중 신  
유지원: 546-3788 수녀원: 544-0153 서목회장: 구 차 호  
본영 홈페이지 주소: http://www.yochon.org

1. 파티마 성모님 방문: 14일(월)~16일(수)  
① 14일(월) 새벽미사가 없으며, 전 11시 미사가 있습니다.  
② 15일(화) 전 11시, 후7:30, 16일(수) 전 11시 있습니다.
2. 교중미사 후: 마르타, 올프레이, 엠마우스- 등반대회및 월례회
3. 금주모임 ① 16일(수) - 대건회  
② 17일(목) - 여성복사단 소풍, 성시간 ③ 18일(금) - 성모회  
④ 19일(토) - 봉월공소미사, 자모회가 있겠습니다.
4. 감사헌금: 익명 10만
5. 고구참사헌금: 김성래 - 2만, 안병우 - 10만, 최영수 - 5만  
■ 지난주 봉헌금: 977,750원 ■ 교무금: 804,000원

**원 평** 주임신부: 543-0880 사무실: 543-0881 주임신부: 정 영 현  
유지원: 543-4236 수녀원: 545-2843 서목회장: 임 정 환

- ◎ 5월은 성모님의 달입니다. 평일미사후에 성모동산 앞에서 신자공동의 묵주의 기도를 바칩니다.
- ◎ 매일 새벽주(다음주)는 성소용원회비와 교무금 납부주일입니다.
- ◎ 구역미사(4구역, 5/18 금, 오후7시)
- ◎ 다음주일(5/20)은 주님 승천대축일이며 수류, 원평 합동미사(장소-원평성당, 시간-10시30분/미사 후 잔치)가 있습니다.
1. 금주: 성모회(교중미사 후), 대건안드레아회(교중미사 후)  
모니카회(교중미사 후)
  2. 순환차운행 봉사자: 금주-박희관(프란치스코) 차주-박영민(요셉)
  3. 금주전례: 해설-안근수, 독서-김중은, 강점실, 봉헌-정인숙가족
  4. 차주전례: 해설-최석기, 독서-오채원, 오천희, 봉헌-이금례가족  
■ 지난주 봉헌금: 575,900원 ■ 교무금: 170,000원

5. 미사시간 변경: 금요일 새벽미사를 오후 8시로 변경합니다.
6. 대건산악회 산행: 14일(월) 오전 10시.
7. 사순절 저금통 봉헌금 추가: 244,670원  
■ 지난주 봉헌금: 457,000원 ■ 교무금: 415,000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 제41차 홍보 주일의 주제 교육의 과제인 어린이와 미디어는 우리에게 서로 연관된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하여 성찰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어린이 교육입니다. 다른 하나는, 덜 부각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미디어 교육입니다.

오늘날 교육이 맡아서 해결해야 할 복잡한 과제들은 흔히 세상에 만연한 미디어의 영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2. 어린이와 미디어와 교육의 관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어린이 교육과 미디어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한 어린이 교육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산업 분야로서 미디어의 책임, 그리고 독자, 시청자, 청취자의 능동적이고 비평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가리키는 일종의 상호 작용이 부각됩니다. 이러한 기본 테두리 안에서 미디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교육하는 일은 어린이의 문화적 도덕적 정신적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공동선을 보호하고 장려해야 하겠습니까? 어린이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미디어를 사용하게 교육하는 일은 부모와 교회와 학교의 책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는 프로그램 선별에서 길잡이가 될 건전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자녀의 양심을 훈련시켜 자녀가 미디어를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대중 문학은 언제나 문화의 일부를 차지하겠지만, 배움의 자리에서는 그 선정적인 표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은 아름다움은 어린이들의 마음과 정신에 생기와 활력을 주지만, 추하고 저속한 것은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교육이 다 그렇듯이, 미디어 교육에도 자유 행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임무입니다. 흔히 즐거움이나 새로운 경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구속입니다! 자유의 수호자인 부모는 자녀에게 점점 더 큰 자유를 주면서 자녀를 삶의 심오한 기쁨으로 이끕니다(제5차 국제가정대회에서 한 연설, 발렌시아, 2006.7.8. 참조).

3. 아름답고 참되고 선한 것을 따라 어린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와 교사들의 진정한 바람은 미디어 산업이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기본적인 인간 존엄, 혼인과 가정생활의 참 가치, 그리고 인류의 바람직한 성취와 목표를 촉진할 때 비로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커뮤니케이션에 관계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고자 한다고 분명히 믿지만 오락을 위하여 폭력을 미화하고 반사회적 행동이나 인간의 성을 하찮게 묘사하는 영화와 비디오 게임과 같은 프로그램과 제품을 만드는 경향이 만연해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 그 파장은 엄청납니다. 다시 한 번 저는 미디어 산업의 책임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제작자들이 공동선과 진리를 수호하고 개인의 인간 존엄을 보호하며 가정의 요구를 존중하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4. 교회에 맡겨진 구원 메시지에 비추어 인류의 교사이기도 한 교회는 부모, 교육자, 커뮤니케이션 종사자,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합니다. 교회의 본당과 학교 프로그램들이 오늘날 미디어 교육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